

초격차 기술·첨단 패키징 경쟁력 강화로 '리딩 기업' 도약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4부. P코로나시대, 혁신의 전도사

1 CJ제일제당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CJ제일제당이 혁신 기술과 R&D를 기반으로 선도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식품과 바이오 분야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현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R&D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혁신 제조기술,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강화해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압도적 R&D 및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식품시장의 판도를 바꿀 차별화된 냉동/상온 HMR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식품산업을 첨단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이 회장의 경영철학을 내세우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인 HMR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끊임 없이 R&D에 투자하며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만 평균 1500억원(전사 기준) 수준이다. 최근 '비비고 죽'을 비롯한 혁신제품을 선보이며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독보적인 맛 품질로 높게 평가 받으며 시장 지위를 강화하

미래 성장동력 HMR제품 개발 박차 선제적 투자로 사업경쟁력 강화 매년 연구개발에 평균 1500억 투자 첨단기술 집약 '식품 통합생산기지'

고 있다. 또 차세대 K-Food로 육성하고 있는 김 상품화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햇반' '비비고' '고메' 등 대표 HMR 브랜드를 중심으로 독보적인 맛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메 일품요리'와 '비비고 국물요리', '햇반 컵반' 등 상온HMR 주요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비고 김치'와 '비비고 죽'은 큰 인기를 끌며 경쟁업체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선보인 밀키트 '쿡킷(COOKIT)'도 이런 전략 하에 탄생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으면서 식품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충북 진천에 약 1조원을 투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식품 통합생산기지(블로썸 캠퍼스)를 건설하고 있다. 'K-Food' 전진기지를 구축해 식품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2017년에는 약 4800억원을 투자해 각 사업부문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 데 모은 융·복합 R&D 허브인 '블로썸파크'를 개관했다. 국내 최초·최대의 통



CJ제일제당은 건강간편식(Healthy HMR) 전문 브랜드 '더비비고'를 론칭하고, 신제품 12종을 출시했다.

합연구소로, 700여 명의 연구원들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열정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몰입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동시에 글로벌 우수 R&D 인재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5월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인 네슬레社에서 20년 넘게 연구원으로 근무한 쓰 코테탄(Sze Cotte-Tan) 전(前) 네슬레 싱가포르 R&D센터장을 식품연구소장으로 영입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을 식품 R&D 총괄 사령탑으로 발탁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초격차 R&D 역량을 확보해 핵심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CJ제일제당은 혁신적인 R&D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경영도 실천하



CJ제일제당 진천 CJ블로썸캠퍼스 전경. CJ제일제당은 충북 진천에 약 1조원을 투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식품 통합생산기지(블로썸 캠퍼스)를 건설하고 있다.



블로썸파크는 국내 최초·최대의 통합연구소로, 700여 명의 연구원들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열정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몰입하고 있다.

고 있다.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고 자연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 환경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친환경 포장 설계(Redesign), 재생 가능한 소재 사용(Recycle), 친환경 원료 사용(Recover)의 3R 정책을 수립했다. 이와 같

은 원칙에 따라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고 재생이 불가능한 포장재는 감량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상생의 친환경 경제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준 강남' 입지... 교통중심지 기대감에 신규 수요 몰린다

3기 신도시를 가다

6 과천 과천지구

사당역까지 두정거장, 녹지공간 풍부 3기신도시 중 면적·공급가구 가장 적어 신축아파트 예정으로 전세가격 하락세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준강남' 경기도 과천에 신규 아파트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곳은 지식정보타운 분양에 따른 청약 수요와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전세가격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고입지'...선바위역 도보 10분

지난 16일 찾은 과천지구는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다.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어 이미 역세권이다. 위치상으로도 서울과 근접해 2·4호선 사당역까지 두 정거장 밖에 되지 않는다. 서쪽으로는 관악산, 북동쪽은 우면산, 남동쪽으로는 청계산이 있어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게다가 양재천이 흘러 신도시가 개발되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예상된다.

과천지구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면적 155만5496㎡으로 총 71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면적과 공급 가구 수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일대.

는 가장 적다. 시행자는 경기도, 과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다.

과천지구는 하남 교산지구와 함께 강남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교통망도 다수 확보됐다. 현재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환승역사, 위례과천선(북정역~정부과천청사역), 안양~사당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과천지구 환승시설이 계획됐다. 신도시가 건설되면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전청약 일정은 오는 2021년 11~12월이다.

과천지구에는 비닐하우스 화훼농가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을 탐방하면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여러 군데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과천지구 주변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연우 기자

기존 주민들과 지자체, LH 간의 갈등이 있어 보였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는 이달 말 완료되며 다음 달 손실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다. 선바위역 인근에서 컨테이너박스로 지어진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 사무실을 찾을 수 있었다.

이희섭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대책위원회장은 "주변 시세에 맞는 적절한 토지 보상을 바랄 뿐이다"라며 "원주민 입장에서 무사히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신규공급

과천은 '강남5구'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부동산 수요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으로 주거 지역으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다. 최근에는 과천지식

정보타운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데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면서 전세가격은 하락세를 겪고 있다.

최근 청약을 받은 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에는 약 57만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공급에 9만1426명이 신청한 데 이어 1순위에서도 47만8390명이 접수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 과천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1317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 1월에는 과천위버필드(2128가구) 등 과천 재건축 아파트들이 연이어 입주를 앞두고 있다.

KB부동산 주택시장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과천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2% 떨어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세가격이 떨어졌다. 지난달 26일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가격



지난 16일 방문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 전경. 비닐하우스 화훼농가들이 자리하고 있다.

도 0.01% 하락했다.

주요 아파트 전세 계약건수를 살펴보면 원문동 래미안슈르(전용면적 84.96㎡)는 지난 달 보증금 9억원에 계약됐지만 이달에는 1억원 떨어진 8억원에 계약됐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97㎡역시 지난 달 계약된 7억3000만원보다 이달 6000만원 가량 떨어진 6억7200만원에 계약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기 신도시 과천지구는 과천의 확장보다도 사실상 서울의 확장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며 "과천은 본래 강남 아파트와 가격이 동조화되는 곳으로 일시적인 하락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